

# 공공도서관 테마 컬렉션의 기능과 특성\*

- 이용자 중심 분류의 관점에서 -

## Functions and Characteristics of Public Library Theme Collection: Focusing on the User-centered Classification Perspective

백 지 원 (Ji-Won Baek)\*\*

### 목 차

- |                    |                       |
|--------------------|-----------------------|
| 1. 서론              | 4. 테마 컬렉션의 분류와 범주화 특성 |
| 2. 테마 컬렉션의 배경과 개념  | 5. 결론                 |
| 3. 테마 컬렉션의 현황 및 특성 |                       |

### 초 록

본 연구는 테마 컬렉션이 가지는 이용자 중심적인 분류로서의 잠재적 가능성에 주목하여 이의 기능과 특성을 분류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테마 컬렉션의 등장 배경을 도서관 자원 조직의 문제와 북 큐레이션 서비스 도입에 관한 논의를 통해 파악하였고, 도서관의 테마 컬렉션의 개념을 정의하고 목적을 밝혔다. 또한, 테마 컬렉션을 구축하고 있는 도서관들의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테마 컬렉션의 구체적인 개념과 특성을 도출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공공도서관 테마 컬렉션의 분류와 범주화 특성을 분석하고 분류로서의 기능 및 특성을 다른 지식조직체와 상대적으로 비교하였다. 또한, 테마 컬렉션의 효용과 활용성을 제시하여 향후 도서관의 이용자 중심적인 분류체계 설계에 관한 논의에 기반으로 삼고자 했다.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tential use of the theme collection as a new classification method that reflects the interest of users in terms of classification and categorization. For this purpose, the background of the theme collection was identified based on the discussion of the library resource organization and the introduction of the curation service of bookstore. In addition, based on case analysis, which is building the theme collection, concrete concepts and characteristics of theme collection are derived.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 the classification and categorization characteristics of public library themes collections were analyzed, and the characteristics and functions as a classification were compared with other categories relatively. Finally, the utility and applicability of the theme collection is presented and it is based on the discussions about the user-centered classification system design of the library in the future.

키워드: 테마 컬렉션, 컬렉션, 테마, 분류, 이용자 중심 분류, 큐레이션, 추천도서, 공공도서관  
Theme Collection, Collection, Theme, Classification, User-centered Classification, Curation, Recommended Books, Public Library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8021916).

\*\* 송의여자대학교 문헌정보과 조교수(jwb@sewc.ac.kr)  
논문접수일자: 2018년 10월 16일 최초심사일자: 2018년 10월 16일 게재확정일자: 2018년 11월 13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2(4): 51-69, 2018. [<http://dx.doi.org/10.4275/KSLIS.2018.52.4.051>]

##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분류는 이용자가 장서를 대면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범주화 및 접근점 제공의 관점에서 중요한 도서관의 업무이며 서비스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지식과 정보의 양적 팽창, 오랜 전통으로 유지되어온 학문 간의 경계가 중복되거나 재편되는 현상, 그리고 새로운 지식 분야의 등장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오늘날의 도서관에서 과거의 분류원리에 의한 분류체계를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특히 일상적인 정보 이용 요구가 높은 공공도서관에서는 학문적 기준에 따른 분류가 아닌, 새로운 관점이나 이용자 요구에 따른 분류법에 대한 필요가 생겨났고, 외국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류의 시도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분류는 국내 도서관 환경에서 공동목록이나 아웃소싱의 방법에 의지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개별 도서관이 직접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업무로 인식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현행 분류법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더라도 재분류, 재장비 작업, 재배가 등 엄청난 양의 실무 작업을 수행할 여건이 안 되는 대부분 공공도서관의 현실상, 분류법의 변경은 선불리 시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분류법에 대한 다양한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분류 분야는 실험적인 변경이나 적용이 어려운 영역으로 여겨져 새로운 시도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외국에서 이용자 관심에 의한 분류나 직관적인 주제어로 분류를 대신

하는 등의 새로운 분류법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는 데 반해, 새로운 유형의 분류 시도들이 우리나라에서 시도된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백지원 2010; 2012). 이처럼 계속되는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계는 획기적인 분류의 개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용자의 관점과 요구에 맞는 새로운 분류 방안 중 하나로 공공도서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테마 컬렉션에 주목하였다. 테마 컬렉션은 도서관에 따라 컬렉션, 테마 도서, 전시 도서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며, 근래 들어 북 큐레이션이라는 용어로 부르기도 한다. 테마 컬렉션은 개별 도서관이 장서 활용도를 높이고자 특정 테마를 중심으로 도서관 자원을 하나의 모음으로 구성하여 별치나 전시의 형태로 서비스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를 지칭하는 합의된 명칭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테마 컬렉션'이라 칭하고자 하며, 용어의 선택에 대한 논의는 3절에서 보다 상세하게 다루었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테마 컬렉션은 다양한 목적, 의도, 대상을 가지고 구축·운영되는 것이겠으나, 기존의 분류가 보여주는 장서의 범주와는 다른, 이용자의 관심에 초점을 맞춘 장서의 새로운 범주를 보여준다는 의도와 효과는 공통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테마 컬렉션이 가지는 분류로서의 잠재적 가능성에 주목하여 테마 컬렉션을 이용자 관심을 반영한 새로운 분류법의 한 유형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공공도서관에서 구축·운영되는 테마 컬렉션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고, 이의 분류로서의 범주화

의 특성, 기능과 활용성을 밝힘으로써 향후 이용자 중심적인 분류법 개발에 기반이 되는 논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구체적인 연구의 방법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통해 테마 컬렉션의 등장 배경을 분석하였다. 공공도서관 분류가 가지는 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공공도서관 테마 컬렉션의 활용 가능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북 큐레이션의 개념을 바탕으로 도서관의 테마 컬렉션의 의미를 밝히고자 했다.

둘째, 테마 컬렉션의 현황 및 특성을 파악했다. 조사 대상은 테마 컬렉션을 활발하게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서울·경기지역 소재의 공공도서관 중 홈페이지나 관련 자료를 통해 컬렉션 구축 활동의 내용과 데이터가 확인되는 곳이다. 수집된 다양한 컬렉션은 유형과 명칭, 컬렉션 구축 및 운영 방법, 컬렉션 특징 등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분석 대상 도서관의 상세한 내용은 3절에서 밝혔다.

셋째, 테마 컬렉션의 분류로서의 범주화의 기능과 특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분석 대상 테마 컬렉션의 유형화를 통해 테마 컬렉션의 성격을 밝혔다. 또한, 향후 테마 컬렉션을 활용한 분류의 가능성 파악을 위해 실제 구축된 테마 컬렉션의 사례를 분석하여 주제 분류로서의 기능과 특성을 파악하고, 향후 테마 컬렉션이 주제 분류로 사용될 수 있는 근거와 기대 효과를 분석하였다.

## 1.3 선행연구

테마 컬렉션이 분류와 범주화의 측면에서 갖는 의미와 기능, 특성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도서관의 문헌 분류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문헌 분류를 개선하거나 변경하려는 시도에 관한 것이다. DDC를 벗어나 이용자 중심적인 분류법을 채택하려는 시도들이 2000년대 중후반부터 외국의 공공도서관에서 이루어졌고, 이러한 새로운 분류법의 의미와 양상, 기능과 효과 등에 관한 연구가 발표되었다(백지원 2010; 2012; 2013; Martínez-Ávila, Segundo and Olson 2014; Martínez-Avila and Kipp 2014; Martínez-Avila 2015).

이러한 연구들은 도서관의 분류가 이용자 중심적인 시각으로 분류의 범주화 방식을 변경하고, 직관적인 어휘나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호법과 시스템 등 관련 장치를 사용하여 이용자의 요구에 맞는 방식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분류법이나 분류 방식 변경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에서 이러한 새로운 분류 방식에 대한 시도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의미 있는 관련 논의도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공공도서관에서의 테마 컬렉션에 관한 연구로서, 대표적으로 공공도서관 장서의 디스플레이 개선의 관점에서 컬렉션 진시에 관한 연구가 있다(Dutta 1961; Baker 1986; 안정희 2015). 안정희(2015)는 이용자들이 책을 읽고 싶게 만드는 도서관 디스플레이에 대해 논하면

서 도서관 디스플레이 콘텐츠 개발 방법의 하나로, 자료의 유용성을 높이고 주제별, 통섭적 읽기를 돕는 다양한 컬렉션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도서관 장서를 대상으로 한 컬렉션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로는 박양하(2016)의 학교도서관 북 큐레이션 서비스에 관한 연구, 이은정과 김기영(2017)의 학교도서관 이벤트컬렉션 프로그램의 독서 효과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이은정과 김기영(2017)은 이벤트 체험과 컬렉션 체험의 융합 프로그램으로 이벤트컬렉션 프로그램의 효과와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다. 정유라와 이지연(2017)은 서비스 이용자의 관점에서, 테마전시 서비스가 이용자 인식과 이용행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고 그 효과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Camacho, Spackman and Cluff(2014)도 테마도서관의 장서순환 효과와 장서 이용증대 효과를 확인하는 기능적인 측면의 연구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와같이 도서관의 기존 장서를 재편하는 범주화의 기능을 하는 컬렉션에 관한 연구는 큐레이션에 대한 논의와 개념적으로 관련이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큐레이션에 대한 논의는 디지털 큐레이션에 치중되어 있으며, 이는 본 연구의 초점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테마 컬렉션의 구축이 근래 서점 및 출판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북 큐레이션의 의도 및 방식과 유사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2절에서 논의하였다.

이상과 같이 테마 컬렉션에 관한 연구는 그 수가 많지 않고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특히 테마 컬렉션에 대하여 이용자 중심적인 분류로서 새로운 범주화의 가능성 및 활용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

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2. 테마 컬렉션의 배경과 개념

### 2.1 공공도서관 자원 조직의 문제

도서관 분류의 가장 직접적인 효용은 관련된 주제는 모이고 관련되지 않은 혹은 관련성이 낮은 주제의 저작은 분리하는 분류의 기본 기능을 통해 발휘된다. 이용자는 분류의 기능을 통해 한곳에 모여있는 유사한 주제를 손쉽게 탐색하고 서가 브라우징을 하면서 유용한 자료를 우연히 발견하기도 한다.

국내외의 많은 공공도서관이 사용하는 DDC, KDC 등의 분류가 공공도서관 자원의 활용성 및 이용자들의 가치 증대에 적합한 체계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논의의 핵심은 DDC 유형의 분류가 브라우징 방식의 검색이 주로 이루어지는 공공도서관의 대중 장서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일반 이용자들이 동일한 주제라고 여기는 것들이 DDC에서는 학문 구분에 기반을 둔 여러 주류(main class)에 분산되어 이용자가 생각하는 범주화의 방식대로 브라우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주제를 숫자로 변환시켜 놓아 직관적인 이해가 불가능한 점도 DDC 유형의 분류를 사용하는 데 있어 어려움으로 지적되어왔다.

반면 흔히 도서관과 비교되는 서점에서는 출판계와 협력하여 이용자 요구 중심적인 분류법을 만들어 주제 분류를 하고 있다. 서점식 분류법을 차용한 공공도서관에서는 책을 이용자 흥미 혹은 관심에 따른 주제 항목으로 나누어 해

당 주제어 아래 배가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더욱 친숙하고 직관적인 방식으로 브라우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백지원 2010). 그러나 서점식 분류법을 채택하는 공공도서관은 시도의 합리성과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오랜 도서관계의 분류 전통과 표준을 벗어나려 한다는 점에서 크고 작은 비판과 비난에 직면해 온 것도 사실이다. 또한, 분류법의 변경이 가져올 업무상의 어려움 때문에 국내 도서관에서는 쉽게 시도되지 못했다.

이에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현실에서 분류의 문제를 개선하고, 공공도서관의 현실에 맞는 자원 조직방안을 개발,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분류법의 변경에 따른 실무적 부담과 정서적 저항이 있으므로 현행 분류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으면서도, 현장에서 쉽게 적용 가능한 실무적 접근 방법을 고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

## 2.2 도서관 테마 컬렉션의 개념

정보의 과잉이 문제가 되고 있는 오늘날에는 정보 그 자체의 가치만큼이나 정보 필터링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정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정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 정보가 가지고 있는 '당신에게만 필요한 가치'와 같은 컨텍스트를 부여하는 작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사사키 도시나오 2012, 211).

이러한 작업을 큐레이션이라 부르는데, 큐레이션은 "생산된 콘텐츠를 목적에 따라 재분류하고 재배치하는 것"(안정희 2015), 또는 "콘텐츠 과잉에 인간이라는 필터 하나를 더 두어 가치를 더하려는 노력"이라고 정의된다(Rosenbaum

2011). 김경아(2017)는 "이용자들이 검색을 통해 원하는 자료만 알아서 찾아가도록 마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연한 발견'의 기회를 끊임없이 제공해야 한다"고 하여 도서관 사서의 큐레이터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책에 있어서도 오늘날처럼 자료가 많아진 시기에는 좋은 책을 고르는 선별 작업 뿐 아니라, 책을 활용목적에 맞게 큐레이팅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이러한 작업을 북 큐레이션이라 할 수 있으며, 서점가에서는 이러한 북 큐레이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서점이 '편집 서점', '큐레이션 서점' 등의 이름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도서관에서 이러한 북 큐레이션의 개념이 가장 적극적으로 응용될 수 있는 분야는 테마 컬렉션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에서는 자원이 적어서가 아니라, 자원을 보여주는 방식이 낯설거나 불친절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접근이 어렵거나 눈에 띄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바 요시타카(2015)는 "책장은 그 책장에 책을 꽂은 사람과 그 책장에서 책을 꺼내 든 사람 간의 끊임없는 대화다"라고 하여, 책장의 편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박영숙(2014, 70)은 "컬렉션은 별칭기호와 전시의 중간쯤에서 주제나 분류의 틀을 넘나들며 좀 더 유연하게 책을 배치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사회의 흐름과 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컬렉션을 만드는 일은 ... 책과 이용자들을 읽고, 서가에 내러티브를 입히고, 서가가 살아 숨 쉬도록 한다"라는 의미에서 '소리 없는 스토리텔링'이라고 설명하였다. 안정희(2015, 86)는 컬렉션은 분류 기준에 따라 각각의 자리에 꽂힌 책들을 해체하여 다시

묶는 작업이라고 정의하였다. 시기별, 상황별, 주제별, 연령별 등 어떤 방식으로든 색깔을 다시 입혀 본래의 책 한 권이 가진 의미보다 그룹으로 새롭게 묶이면서 전체 속에 각각의 의미가 재창조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도서관의 테마 컬렉션은 도서관의 많은 정보자원 중 특정한 테마를 중심으로 자원을 선별, 재분류, 재배치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거나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도서관에서의 테마 컬렉션은 큐레이션 작업을 기반으로 하여, 정보자료의 개발과 효과적인 제공을 접목한 서비스이며, 특히 분류의 관점에서는 이차적인 범주화를 통해 장서를 재편하는 기능을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 3. 테마 컬렉션의 현황 및 특성

#### 3.1 분석 대상

분석 대상으로 삼은 도서관은 테마 컬렉션 구축 및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곳 중, 구체적인 테마 컬렉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었던 기관이다. 선정된 분석 대상은 강남구립도서관 16개 관(대표도서관, 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 등), 경기평생학습자료관, 느티나무도서관, 서울시교육청 소속 도서관 및 평생교육관 22개 관, 구산동도서관마을, 서초구립반포도서관, 아리랑정보도서관, 파주시도서관 14개 관 등이다.

이들 도서관에서 운영 중인 테마 컬렉션에 관한 데이터는 각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하였다. 또한, 파주시도서관의

통합 소식지 'PLAY(Paju LibrAry comes to You)', 강남구립도서관의 컬렉션 관련 리플렛 '월간강남북큐(BookCuration)' 등 테마 컬렉션 정보를 수록한 공식 발간 자료를 통해서도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컬렉션 구축은 하고 있으나 외부로 공개된 정보가 없거나 각종 데이터에 대한 해석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각 도서관 담당자에게 개별적으로 문의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확인하였다.

#### 3.2 용어 선정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공공도서관에서 다양한 이슈를 중심으로 도서관 자원을 모아 서비스하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는 '북 큐레이션', '주제가 있는 북 큐레이션', '테마도서', '주제별 도서전시', '테마전시', '주제별 추천도서', '컬렉션', '추천도서' 등으로 다양했다. 정유라와 이지연(2017)은 이 중 '테마전시'를 '도서관의 장서 및 장서와 연계된 자료 가운데 일부를 특정 주제 아래 선정하여, 도서 내부 또는 외부의 별도 공간에 평면 배가나 특별 배가 방식으로 전시해 놓은 것'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고려를 바탕으로 이러한 개념을 '테마 컬렉션'이라 칭하고자 하였다.

문헌정보학에는 '토픽', '주제', '개념', 'aboutness', 'ofness', 'isness' 등 '이 개체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개체는 무엇에 관한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여러 용어 및 유의어가 있으며 맥락과 의도에 따른 다양한 해석이 존재해 왔다(Hjørland 2017). '테마'는 '주제'와 사전적 의미로 구분 없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둘을 구분하고자 할 때 '테마'에는 '전달하고자 하는 큰

메시지'라는 구분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컬렉션 구축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느티나무 도서관의 박영숙 관장은 '키워드', '주제', '테마' 등 컬렉션 구축의 기준이 되는 '무엇' 중 컬렉션의 중심은 '주제'라기 보다는 '메시지가 있는 주제'라는 의미에서 '테마'가 가장 적합한 용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전통적인 분류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주제' 보다는, 여러 주제나 관점이 결합되어, 특정한 메시지를 담고자 하는 컬렉션 구축의 의도를 살리기에 적합한 용어는 '테마'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테마' 다음에 결합할 단어로 '도서', '전시', '컬렉션'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중 '도서'는 단일 개체의 이미지가 강하고, 도서뿐 아니라 각종 비도서 매체도 함께 컬렉션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전시'는 내용보다는 보여주는 양식에 중점을 둔 용어이다. 따라서 설정된 테마에 따른 다양한 정보자원을 선별하고 모아서 하나의 하위 '장서'를 '구성'한다는 측면에 중점을 두었을 때 '컬렉션'이라는 용어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근래 도서관계에서는 '북 큐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별, 편집 등 큐레이팅 작업을 테마 컬렉션의 구축 과정 중 일부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큐레이션'이 테마 컬렉션의 개념과 내용을 모두 포괄하기에는 지엽적인 용어라고 간주하여 이를 직접적인 명칭으로 선택하지 않았다.

한편, 여러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추천도서'는 '테마 컬렉션'과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추천도서'는 개별 저작의 주제에 초점을 두고 대체로 신간 도서 위주로 선정되는 반면, 테마 컬렉션은 어떤 테마를 중심으로 선정된 저작들이 하나의

모듬으로서 범주화되는 것이다. 즉, 개별성보다는 하나의 테마 아래 여러 관점의 저작들이 모여서 해당 테마에 대한 집합적, 종합적 시각과 메시지를 갖게 된다는 것이 테마 컬렉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추천도서'의 한 종류로 '테마도서'를 설정해둔 도서관도 있으므로, 실제 사례에서는 개념이 상호 분명히 구분되지는 않는다.

### 3.3 테마 컬렉션 구축 방식 및 운영 특성

도서관별 테마 컬렉션의 구축 및 운영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테마 컬렉션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표 1〉 참조). 분석 항목에 따라 일반적인 사례와 특색이 있는 사례가 존재했으므로 대비가 되도록 제시하였다.

명칭에 있어서 테마 컬렉션의 주제성, 공간, 자료실별 특성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느티나무도서관은 테마 컬렉션에 사회의 각종 이슈와 이용자들의 관심사를 담는다는 의미에서 '사회를 담는 컬렉션'이라 명명하고 테마에 따라 개별 컬렉션 명을 붙인다. 강남구립도서관 소속 16개 도서관은 관내 도서관들 간의 주제별 분담 수서를 통한 도서관 특성화를 기반으로 분담수서와 연계한 테마 컬렉션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시스템 북 큐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이아영 2018).

하나의 도서관에서 실별로 테마 컬렉션을 운영하는 경우, 여러 개의 컬렉션 명칭이 사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교하도서관의 테마 컬렉션은 컬렉션의 구축, 운영이 이루어지는 주관 자료실과 그에 따른 주요 이용 대상자 및 매체에 따라 '시선/썸표/FOCUS/모모책장/테마DVD' 등으로 그 이름이 다양하다.

〈표 1〉 테마 컬렉션 구성 및 운영 비교

비교 항목	주요 내용 [사례 도서관]
명칭	- '컬렉션', '사회를 담은 컬렉션', '테마도서', '테마전시', '북 큐레이션', '주제가 있는 북 큐레이션', '시스템 북 큐레이션', '주제별 추천도서' 등 다양 - 하나의 도서관에서 다수의 테마 컬렉션을 구축하는 경우, 컬렉션의 특색을 살린 여러 하위 컬렉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있음 [교하도서관, 파주중앙도서관]
구성 및 규모	- 테마 컬렉션에 속하는 자료의 수에 제한 없는 것이 일반적임 - 테마 컬렉션을 구성하는 주제 영역별 권수 및 총 권수가 정해져 있음 [경기도평생학습자료관]
테마 공유 범위	- 도서관 전체 자료실이 하나의 테마 아래 각기 컬렉션을 구축 [구산동도서관마을] - 자료실 간 통합 테마 컬렉션과 자료실별 테마 컬렉션을 동시에 구축 [아리랑정보도서관] - 자료실별로 개별 컬렉션만 구축 [가람도서관]
대상 매체	- 도서관만을 대상으로 테마 컬렉션 구축 [서울시교육청 소속 기관] - 도서와 영화를 분리하여 테마 컬렉션으로 구축 [교하도서관, 파주중앙도서관] - 하나의 테마 컬렉션 내에 여러 매체를 혼합하여 구축 [느티나무도서관]
구축 및 운영 단위	- 개별 도서관 단위로 구축하는 것이 일반적임 - 개별 도서관 단위로 구축하되, 테마 컬렉션에 관한 정보는 공동으로 발행하는 소식지나 포털을 통해 공유 [파주시도서관 'PLAY'], [서울시교육청 소속 기관 '사서추천도서포털'] - 관내 도서관들간의 주제별 분담수서와 연계한 테마 컬렉션 구축 [강남구립도서관 소속 16개 관]
운영 기간	- 일정 기간 이후 테마 컬렉션이 물리적으로 해체되는 것이 일반적임 - 구축된 테마 컬렉션이 종료 시한을 두지 않고 계속 유지됨 [느티나무도서관]

컬렉션 구성 및 규모의 측면에서는 제한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경기 평생학습자료관의 모든 테마 컬렉션은 항상 30권의 단행본으로 이루어진다. 이들 30권은 어린이실, 어문학간행물실, 인문사회자연과학실에서 각 10권씩의 도서가 테마 컬렉션으로 모인 것이다. 이 경우 하나의 컬렉션을 구성할 때 연령 및 주제별 자원 균형을 위해 다소 기계적인 구성 비율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테마 공유의 범위에 있어 자료실별로 개별 컬렉션을 구축하는 경우, 자료실별 컬렉션과 도서관 전체의 컬렉션이 따로 존재하는 경우,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도서관의 자료실들이 개별 컬렉션을 구축하는 경우 등 적용의 정도와 방식이 다르다. 도서관 전체가 하나의 일관된 테마로 컬렉션을 구축하되, 각 자료실이 별도의 컬렉션 제목을 갖는 사례로, 구산동도서관마을은 월별로 하나의 테마를 선택하고, 여러 자료실이 해당 주제에 맞춰 각기 컬렉션을 구축한다(〈표 2〉 참조).

〈표 2〉 테마를 공유하는 자료실별 테마 컬렉션 사례 [구산동도서관마을, 2017년 5월]

테마	테마명	운영 자료실	테마 컬렉션명
주거문제	'도서관마을, 주거를 말한다'	어린이자료실	'나도 내 방이 있으면 좋겠어'
		청소년자료실	"그 집"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
		종합자료실 I	'내가 살 집은 어디에 있을까?'
		종합자료실 II	'지상의 방 한 칸'
		만화자료실	'집, 불편하고 행복한 신기루'
마을자료실	'주거 환경? 공동체 환경!'		



대상 매체에 있어서 도서만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 있는 반면, 의도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자원을 혼합하는 사례들도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교육청 소속 기관과 서초구립반포도서관, 강남구립도서관 소속 도서관, 경기평생학습자료관 등은 모두 단행본만을 컬렉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반면, 느티나무도서관은 단행본(문학/비문학), 그림책, 만화책, 기사, 영화, 영상, 학술기사/논문, 자료집, 음악, 웹툰, 웹 정보, 조례 등 해당 테마와 관련된 다양한 자원 유형을 한 데 모아 자원의 상호 연계와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테마 컬렉션의 지속성에도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도서관에서는 한 번 구성된 테마 컬렉션이 일정 기간 이후 원래의 분류체계에 따른 배가 위

치로 흩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컬렉션이 물리적으로 유지되고, 결과적으로 테마 컬렉션의 분류체계가 생성되는 경우가 있다. 느티나무도서관은 테마 컬렉션의 구축이 본격화된 2012년경부터 2018년 8월 현재까지 구축 중인 것을 포함하여 50개 내외의 테마 컬렉션을 구축하여 왔고, 테마 컬렉션이 각각 독립된 별도의 서가에 배가되어 있다. 이러한 구축 및 운영 과정에서 7개의 대분류로 나누어진 테마 컬렉션의 체계를 갖추었으며, 도서관 홈페이지에서는 컬렉션별 검색과 브라우징이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다(〈그림 1〉 참조). 이 경우 테마 컬렉션은 일시적인, 혹은 단기간의 이벤트성이 아닌, 일종의 분류로서 장서 재범주화의 기능을 본격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1〉 느티나무도서관 테마 컬렉션 검색과 브라우징 인터페이스(일부)

출처: 느티나무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eutinamu.org/page/s1/s3.php>>

## 4. 테마 컬렉션의 분류와 범주화 특성

### 4.1 테마의 유형

테마 컬렉션은 분류의 관점에서 보면 테마를 중심으로 같은 것을 모으고 다른 것을 나누는 분류 고유의 범주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DDC,

KDC 등의 분류를 적용하는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이 범주화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 학문적 관점에 기반을 둔 것이라면, 테마 컬렉션에서는 개별 도서관마다, 시기마다, 의도마다 범주화의 관점이 다양하다는 차이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사례에서 드러나는 테마의 성격을 분류의 범주화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특징적인 유형을 도출할 수 있었다(〈표 3〉 참조).

〈표 3〉 테마 컬렉션 '테마'의 유형과 주요 사례

테마의 유형	내용	사례 [도서관, 시기]
시기적 특성	월별 특성 및 계절별 관심사 반영	- '올해 주인공은 나야 나' - 신년, 새로운 시작, 새해 결심 관련 [과주금촌3동솔빛도서관, 2018년 1·2월] - '여름, 떠나고 싶은 날' - 여름 휴가, 여행 관련 [반포도서관, 2015년 8월] - '벌써 겨울이 왔다고?' - 11월 7일 입동. 이번 겨울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행복어린이도서관, 2017년 11월]
기념일	기념일 반영	- 한글날: '위대한 우리 유산 한글' [과주중앙도서관, 2017년 10월] - 6·25: '전쟁과 평화' [해솔도서관, 2018년 6월] - 추석과 할로윈: '헬로, 할로 Hello, Hallow - 추석과 할로윈의 사이' [조리도서관, 2017년 10월]
사회적 이슈	해당 시기의 정치·사회적 이슈 반영	- '트럼프에 대비하라' -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관련 [과주중앙도서관, 2016년 11월] - '대한민국 헌법 읽기' - 헌법 및 헌법 개정에 대한 이슈 관련 [아리랑정보도서관, 2018년 2월] - '투표의 힘' - 6.13 지방선거 관련 [적성도서관, 2018년 6월]
도서관 이슈	이용자와 도서관의 이슈를 공유	- '책이 아야, 책을 아껴주세요' - 훼손, 오손 도서를 모은 컬렉션 [과주금촌3동솔빛도서관, 2017년 9월] - '낙서 책' - 밑줄과 낙서, 찢김 등으로 훼손된 도서관 책 컬렉션 [아리랑정보도서관, 2018년 6월]
운율	해당하는 달의 운율을 이용	- '오(5), 징그러운 가족!' - 사랑하지만 빼격거리는 관계를 돌아보는 책들 [가람도서관, 2018년 5월] - '노동하는 일곱(7) 난쟁이' - 직접 만드는 경험, 노동이 주는 성취감 등에 관한 책들 [가람도서관, 2018년 7월]
흥미	이용자의 흥미 유발	- '등짝스메싱(등짝스메싱을 유발하는 제목!)' [과주금촌3동솔빛도서관, 2017년 6월] - '아이들의 그 책들': 아이들이 추천한 책을 모은 컬렉션 [과주중앙도서관, 2017년 9월] - '한 번도 안 틀리고 누구도 외우기 어려운 제목: 너무나 긴 제목의 책들' [물푸레도서관, 2018년 6월]
자원 활용성	자원 활용성 증진 및 효율성 제고	- '2016 예약 TOP 20, 2월 대출가능 도서. 이제는 볼 수 있다!' - 1년전 쉽게 손에 넣을 수 없었던 인기 도서들을 1년 전 예약 횟수 순으로 모음 [물푸레도서관, 2017년 2월] - '처음 뵈겠습니다: 단 한 번도 대출되지 않은 숨겨있는 보물 같은 책과의 소개팅' - 대출 건수가 1건도 없는 자료들 모음 [조리도서관, 2018년 1월]

테마 컬렉션의 '테마'와 분류의 '주제'를 비교했을 때, '테마'는 사회적인 이슈, 생활 주변의 문제, 특정 시기의 관심사, 이슈가 되는 인물, 사회·문화적인 현상 등 이용자의 일상적인 관심에 초점을 둔 경우가 많았다. 테마 컬렉션에 담겨 있는 이용자의 관심은 확인된 혹은 예상되는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향후 이용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거나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은 의도가 있을 수 있다. 기존의 분류체계에서는 잘 보이지 않던 저작들의 특징을 포착하여 컬렉션 제목만으로도 흥미를 끄는 컬렉션을 구축하고 이용자들이 관심을 갖고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등짜스매싱(등짜스매싱을 유발하는 제목!)'과 '한 번도 안 틀리고 누구도 외우기 어려운 제목: 너무나 긴 제목의 책들'과 같은 예가 있다.

또한, 자원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물푸레도서관의 2017년 2월 테마 컬렉션인 '2016 예약 TOP 20, 2월 대출가능 도서. 이제는 볼 수 있다!'와 조리도서관의 2018년 1월의 테마 컬렉션인 '처음 뵈겠습니다: 단 한 번도 대출되지 않은 숨겨있는 보물 같은 책과의 소개팅'은 각각 최고와 최저의 대출 빈도를 보인 자원들에 대한 호기심을 지속시키거나 새롭게 유발하는 재치있는 테마 컬렉션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테마 컬렉션은 이용자의 관심에 따른 테마를 선정하여 장서를 범주화하여 쉽고 일상적인 어휘와 표현으로 제시함으로써 이용자의 독서 흥미를 고취하고 새로운 이용자를 개발할 수 있다.

## 4.2 자원 조직체계로서의 테마 컬렉션

### 4.2.1 주제 분류의 측면

테마 컬렉션에서 '테마'를 기준으로 이루어지

는 범주화는 도서관 분류와 일치하기도 하고 혹은 별도의 이차적인 범주 생성을 통해 기존의 도서관 분류와 전혀 다른 결과를 낳기도 한다.

KDC의 범주를 그대로 적용하는 예로, 서울 시교육청 소속 도서관의 테마 컬렉션이라 할 수 있는 '주제별 추천도서'의 사례 중 하나를 들 수 있다. 용산도서관의 2018년 2월 테마 컬렉션인 '나를 표현하는 최고의 기술 글쓰기'에 속하는 저작 8권은 모두 KDC 802(문장작법, 수사학)에 해당한다. 이는 테마 컬렉션을 통해 새로운 분류의 관점을 보여주기보다는 기존의 KDC 분류 내에서 특정한 책들을 추천하는 개념, 즉 추천도서에 가까운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소수의 사례를 제외하고, 분석 대상 테마 컬렉션에서는 장서를 도서관 분류 특유의 학문적 관점과 상관없이 새로운 방식으로 범주화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테마 컬렉션의 범주화 기능과 특성을 다음과 같은 사례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느티나무도서관의 2017년 3월 테마 컬렉션인 '인간과 동물, 유대와 배신의 탄생'은 초기에는 단행본 46권 및 기타 매체로 구성되었으며, 이후 운영 과정에서 축소되어 2018년 8월 현재 단행본 33권 및 기타 매체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유사한 테마를 다룬 용산도서관의 2018년 3월 테마 컬렉션 '더불어 사는 세상, 동물복지'는 10권의 단행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테마 컬렉션에 속한 책이 가지고 있는 청구기호는 KDC 분류에 기반을 둔 것이지만, 테마 컬렉션으로 모일 때는 청구기호에 관계없이 '동물복지',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다룬 저작들이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테마 아래 위치하게 된 것이다.

‘더불어 사는 세상, 동물복지’에 속한 저작 중 하나인 『우리는 왜 개는 사랑하고, 돼지는 먹고, 소는 신을까』(원표제: *Why we love dogs, eat pigs, and wear cows: an introduction to carnism*)는 육식주의, 동물권 등을 심리학적, 사회학적 측면에서 다룬 책이다. 이 저작에 대한 국내외 종합목록에 나타난 DDC, KDC, LCSH 주제 분석 데이터, 서점식 분류를 채택한 미국 공공도서관 사례 중 하나인 Frankfort Public Library의 분류기호, 온라인서점 Amazon의 주제 항목을 비교하면 <표 4>와 같다.

저작은 국내 대학, 공공도서관에서 DDC, KDC로는 사회과학 혹은 기술과학 중 한쪽에 속해 있다. 이 경우 기술과학의 ‘육류’ 또는 사회과학의 ‘사회심리학’, ‘사회적 상호작용’ 중 하나를 선택해서 주제 분류하게 되므로 해당 저작이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의 복합적인 관점을 충실히 전달

하기 힘들다.

미국 출판업계의 표준 주제 분류체계인 BISAC Subject Headings를 기반으로 서점식 분류체계를 만들어 사용하는 Frankfort Public Library에서는 해당 저작에 대해 ‘HEALTH NUTRITION’을 분류기호로 부여하고 있다. ‘HEALTH’는 Frankfort 도서관 자체 분류체계인 *Dewey Free Taxonomy*의 56개 대범주 중 하나를 선택한 것으로, 10개의 대범주 중 하나를 선택하는 십진 분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세부 적합성이 높은 관점이 선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결국 이 경우에도 ‘건강 > 영양’이라는 관점 하나밖에 선택하지 못한다. 따라서 도서관의 서점식 분류 역시 단일 주제 분류의 관점밖에 드러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도서관의 전통적인 문헌 분류와 동일한 근본적인 한계를 갖는다.

<표 4> *Why we love dogs, eat pigs, and wear cows: an introduction to carnism* (by Melanie Joy)에 대한 주제 분석 데이터

도서관의 문헌 분류 (DDC, KDC)	도서관의 서점식 분류 (Frankfort Library)	주제명표목 (LCSH)	온라인서점 항목 (Amazon.com)
600 Technology 641.3 Food <b>641.36</b> Specific food from animals	‘HEALTH NUTRITION’ - ‘HEALTH’는 56개 Collection(대분류) 중 하나 - ‘NUTRITION’은 ‘HEALTH’ 아래의 32개 Category 중 하나	- Meat -- Psychological aspects. - Animals -- Psychological aspects. - Meat -- Social aspects. - Food preferences.	- Science & Math > Agricultural Sciences > History - Science & Math > Nature & Ecology > Animal Rights - Science & Math > Agricultural Sciences > Food Science
300 Social Science <b>302</b> Social interaction Class here social psychology			
500 기술과학 594 식품과 음료 <b>594.24</b> 육류			
300 사회과학 331 사회학 <b>331.1</b> 사회심리학 사회적 상호작용을 포함한다.			

이에 비해 테마 컬렉션에서는 다양한 주제적 관점을 ‘동물복지’라는 테마로 묶어 제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해당 테마를 구성하는 복합적인 관점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 4.2.2 주제어의 측면

도서관 자원에 대한 다양한 주제적 접근은 분류 이외에도 해당 주제들을 표현할 수 있는 주제명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표 4>에 따르면 해당 저작에 대해 부여된 LCSH는 Meat - Psychological aspects, Animals - Psychological aspects, Meat - Social aspects, Food preferences 등이다. 온라인서점 Amazon의 주제 항목 역시 농학에서의 역사, 자연 생태학에서의 동물권, 농학에서의 음식 과학 등 복수의 관점을 제시한다. 이러한 주제명은 문헌 분류의 주제 분석에 비해 해당 저작을 좀 더 다각적으로 해석하여 제시함으로써 주제가 입체적이고 명확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다. 이는 도서관 문헌 분류가 주제어 같은 장치로 보완될 때 비로소 저작이 다루는 다양한 관점에 대한 적절한 접근점을 갖게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도서관의 서지제어 활동에 있어 주제명의 부여는 매우 기초적인 수준에서 혹은 일부 기관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더군다나 권위 있는 주제명의 개발 또한 담보상태에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에서 충실한 주제명의 부여를 통해 다양한 주제 접근을 지원 하는 것은 아직 요원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느티나무도서관의 테마 컬렉션 ‘인간과 동물 유대와 배신의 탄생’에 대해 해당 도서관은 태그로 ‘축화’, ‘반려동물’, ‘동물과 인간의 공존’, ‘동물의 사회적 권리’, ‘동물권’, ‘동물복지’, ‘반

려동물 유기’, ‘동물의 인격권’ 등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컬렉션을 구성하는 각각의 저작에 대해서도 비통제 주제어를 다수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태그 또는 주제어들은 이용자의 자원을 바라보는 관점을 넓히고, 자원의 해석과 활용에 대해 다양한 제안을 해 줄 가능성이 있다.

### 4.3 분류로서의 특성 및 범주화 기능성

#### 4.3.1 범주화와 브라우징의 기능성

테마 컬렉션에서는 어떤 주제를 바라보는 최적의 단일 관점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저작의 주제들이 종합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관심이 있다. 따라서 메시지를 풍성하게 제시할 수 있는 관점의 다양성을 허용하고 권장하는 방식의 범주화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범주화의 측면에서 문헌 분류와 테마 컬렉션의 차이는 브라우징 효과를 통해 비교해 볼 수 있다. 앞선 분석 대상 저작(*Why we love dogs, eat pigs, and wear cows: an introduction to carnism*)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 중 서가 브라우징을 제공하고 있는 도서관의 사례를 통해 범주화 방식에 따른 브라우징의 효과를 테마 컬렉션과 비교하였다. 가상서가 브라우징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 공공도서관은 찾기 어려웠으므로, 위의 책을 소장하고 가상서가 브라우징을 제공하는 6개 대학도서관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분석 저작을 중심으로 서가 브라우징의 결과를 수집하였다. 도서관에서 따라 ‘가상서가’, ‘청구기호 브라우징’, ‘유사컨텐츠’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검색한 해당 저작을 중심으로 3~5개의 유사 주제 저작이 제시되고 있었다. 대학도서관의 특성

상 원서를 소장한 경우가 많아 원서를 기준으로 하였고, 전자책과 복본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 상태에서 해당 저작을 중심으로 앞과 뒤로 각각 1~2권씩의 관련 저작을 보여주는 가상서가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테마 컬렉션을 제공하는 공공도서관은 KDC를, 대학도서관은 DDC를 적용한 범주화의 결과이지만, 본 연구는 분류 값 자체가 아닌, 주제의 다양성과 분포를 비교하고자 한 것이므로 비교 대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표 5〉 참조).

분석 결과, 6개의 대학도서관은 대상 저작을 모두 DDC 641.36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이를 중심으로 가상서가 브라우징을 통해 함께 보여지는 자료는 모두 DDC 기술과학에 속하는 것이었으며, 내용적으로는 음식 재료로서의 관점과 육식에 대한 관점만 제공되었다.

반면, 테마 컬렉션을 통한 범주화를 통해서 는 KDC의 여러 주류(main class)에 걸친 다양한 관점의 자료가 제시되었다. 느티나무도서관의 46권은 KDC의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예술, 문학에 해당하는 자료였다. 용산도서관의 10권은 KDC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

학, 문학에 해당하는 자료였다. 서가 브라우징을 통해 보여지는 관련 저작의 수가 테마 컬렉션의 총 권수에 비해 적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기존의 문헌 분류 방식을 반영한 서가 브라우징을 통해서 테마 컬렉션과 같이 여러 관점의 주제가 함께 제시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처럼 문헌 분류의 원리에 따라 배가된 저작들을 서가 브라우징할 경우, 주제 인접성이 큰, 또 하나의 개별 '저작'을 발견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이에 비해 테마 컬렉션을 브라우징한다는 것은, 테마 내의 다양한 주제와 관점을 훑어본다는 것이다. 즉, 테마 컬렉션은 주제 인접성보다는 관점의 확장, 다양화를 의도하는 것이며, 어떤 테마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메시지를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이는 개별 '저작'이 아닌, 테마 내의 다양한 '주제' 훑어보기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테마 컬렉션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해당 테마에 대한 풍부하고 종합적인 관점을 접하게 되고, 다양한 측면에서 사고하고 정보를 탐색해 나갈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게 된다.

〈표 5〉 범주화 방식에 따른 관점의 다양성 비교

문헌 분류를 적용한 가상서가 브라우징(DDC 기반)						테마 컬렉션내의 주제 분포(KDC 기반)	
D대 청구기호 브라우징	E대 청구기호 브라우징	H대 가상서가	J대 유사컨텐츠	K대 가상서가	S대 가상서가	느티나무 도서관*	용산도서관
641.36	641.359	641.35655		641.3565	641.3373	100	331.1
641.36	641.36	641.36	641.36	641.3565	641.3374	380	491.508 (3권)
641.36	641.36	641.36	641.36	641.357	641.36	4XX (17권)	491.0733
641.36	641.36	641.36	641.36	641.36	641.5	5XX (10권)	494.76
641.36	641.36	641.36		641.36	641.5	6XX (2권)	499.5
						8XX (15권)	527.04
							529.69
							873

\* 해당하는 저작이 많은 주제 분야는 주류(main class) 수준에서 권수와 함께 표시하였음

4.3.2 분류적 성격과 특성

다른 분류체계와의 비교를 통해 테마 컬렉션의 분류적 성격과 테마 컬렉션이 갖는 상대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도서관의 전통적인 분류법, 서점식 분류법, 그리고 테마 컬렉션을 항목을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다(〈표 6〉 참조).

분석 결과, 테마 컬렉션은 도서관 분류보다 서점식 분류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으나 여러 면에서 차이 또한 존재했다.

분류의 목적에 있어 도서관의 문헌 분류가

책의 '주제성'에 관심이 있다면 테마 컬렉션이 제시하는 분류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 자원을 필요로 하고 활용할 것인가 하는 '활용성'에 주된 관심을 두고 있다. 즉, 기존의 분류업무 수행을 위해 사서가 '책이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객관적 주제에 관심을 집중한다면, 테마 컬렉션에서는 주제를 바라보는 이용자의 관점에서 이용자의 정보 요구, 자원의 다양한 활용을 고려한 자원의 범주화와 드러내기를 시도하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분류의 기준에 있어 테마 컬렉션은 분류의

〈표 6〉 테마 컬렉션의 분류적 성격과 상대적 특성

	도서관 분류	서점식 분류	테마 컬렉션
목적	- 자료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배가 - 인접한 자료의 주제별 브라우징 지원	- 자료를 다양한 방식으로 배가하여 책의 노출을 극대화 - 이용자 친화적인 브라우징을 제공하여 이용 촉진	- 새로운 방식의 범주화와 별치로 자료의 노출성 강화 - 이용자의 관심을 환기하여 자료의 활용도 높임
기능	- 배가의 기준 - 자료에 대한 단일한 물리적 접근점 제공	- 배가의 기준 - 자료에 대한 다양한 접근점 제공	- 별치 또는 전시의 근거와 기준
분류 기준	- Harris, Bacon 등의 학문 분류에 기반함	- 논리적 기준보다는 도서 판매확대를 위한 다양한 기준이 복합적으로 적용됨	- 일상적·사회적 이슈 등 이용자 관심사 위주 - 사실상 제한 없음
분류의 방식	- 10개의 주류(main class) 중 하나가 선택되고, 해당 저작에 관련된 다른 관점은 배제됨	- 실물 배가를 위한 분류체계로 기능하는 경우 대체로 하나의 관점이 선택됨 - 온라인 분류로 활용될 때는 여러 관점 제시 가능	- 기존 분류체계에 구애받지 않는 테마 중심의 범주화가 이루어짐
범주화의 특징	- 배가를 위한 체계성을 갖추었으나 검색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데는 부족 - 낮은 기호법으로 이용자에게 부담이 됨	- 십진식 문헌 분류에 비해 범주의 개수가 많음 - 어휘로 표현하는 경우 문헌 분류보다는 이용자 관점의 직관적 이해가 가능함	- 다양한 관점을 제시함 - 흥미를 끄는 테마와 테마명을 사용하여 이용자 관심 환기 및 정보 활용 촉진 가능
범주의 지속성	- 지속성 높음	- 변경 가능성 있음	- 비교적 단기의 일정 기간만 유지됨 - 도서관에 따라 지속성을 갖고 유지되기도 함
업무의 산출물	- 개별 자원에 부여되는 분류기호와 그에 따른 장서 구성	- 개별 자원에 부여되는 분류기호 및 주제어와 그에 따른 장서 구성	- 테마별로 구분된 장서 - 상향식, 귀납식의 테마 분류체계 생성 가능

기준인 테마가 사회의 주요 이슈나 이용자의 관심사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서점식 분류와 유사하다. 그러나 사실상 테마가 될 수 있는 주제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일정한 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정해진 주제로 체계를 이루는 서점식 분류와 차이가 있다.

또한, 범주의 지속성 및 업무의 산출물의 측면에서 테마 컬렉션이 누적되고 일정 기간 이후에도 물리적으로 해체되지 않고 유지될 경우, 분류기호 및 그에 따라 범주화된 장서 뿐 아니라 분류체계를 생성해 낼 수도 있다. 기존의 문헌 분류체계가 대체로 하향식, 연역적 구축 과정을 거친다면, 테마 컬렉션 분류체계의 구축은 상대적으로 상향식, 귀납적인 범주화의 성격이 강하다. 느티나무도서관의 테마 컬렉션 분류체계가 이러한 사례가 될 수 있다.

## 5. 결론

그간 공공도서관의 분류 문제에 있어 가장 큰 이슈는 도서관의 분류가 이용자 요구에 맞는 방식으로 자원을 조직하고 있는가와 그 결과를 보여주는 방식이 이용자 친화적인가 하는 점이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DDC로 대변되는 전통적인 도서관 분류를 벗어나 보다 공공도서관 현장에 적합한 대안적인 분류법을 개발·적용하고자 하는 관심과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전통적인 분류체계를 벗어나는 것에 대한 심리적인 거부감 및 업무적 부담은 이러한 논의가 실질적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 장애가 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테마 컬렉션이 분류의 기능과 범주화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테마 컬렉션의 범주화 기능을 활용함으로써 현재 문헌 분류가 가진 제약과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테마 컬렉션은 주제, 형식, 이슈 등 이용자가 관심 있어 할 법한 새로운 관점으로 자료를 범주화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테마 컬렉션은 기존의 학문적 관점을 중시한 전통적인 문헌 분류보다는 이용자가 바라보는 현실적인 관점의 주제, 현상, 이슈 등에 따라 새로운 방식의 범주화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

테마 컬렉션의 개념과 특성, 분류로서의 기능과 범주화의 특성 분석을 바탕으로 테마 컬렉션의 분류 관점의 효용과 활용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 분류의 단일 분류 관점이 갖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문헌 분류에서 학문적 관점으로 분산된 정보 요구들을 일상적인 관점으로 범주화한다. 이처럼 사회의 화두, 이용자의 관심사를 반영한 범주화를 통해 실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여 다양한 저작에 대한 이용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기존의 분류체계 아래서는 쉽게 드러나지 않았던 저작들이 활용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즉, 테마 컬렉션의 도입을 통해 전체 장서의 분류를 바꾸지 않고 저작의 재범주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에서 문헌 분류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DDC나 KDC를 대체하는 이용자 관심 중심의 분류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새로운 저작 재편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테마 컬렉션을 통해 DDC를 완



전히 배제하는 Dewey free 식의 서점식 분류 도입의 부담은 줄이고, 이용자 관점 분류 도입과 유사한 효과는 얻을 수 있다.

또한, 주제뿐 아니라 도서관이 운영과 활용의 편의를 위해 설정해 놓은 자원 유형, 장르, 이용 연령별로 구분된 영역이 혼합되면서 자원의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이용이 가능해지고 정보 이용의 수준이 심화될 수 있다. 이는 도서관 자원 유형 전체의 고른 활용을 가능케 하고, 더욱 전문적이고 심화된 정보 이용 단계로 이용

자의 정보 활용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테마 컬렉션이 지속성을 가지고 유지되면서 충분한 컬렉션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문헌 분류의 기존 범주화 방식이 테마 컬렉션의 범주화로 인해 어떻게 재편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으로 테마 컬렉션의 이용자 중심적인 분류 체계로서의 활용과 효과에 대한 데이터 축적과 분석이 이루어지면 향후 이용자 요구에 맞는 보다 진일보한 분류법 개발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김경아. 2017. 큐레이션의 시대, 사서로 산다는 것. 『오늘의 도서관』, 249: 10-11. 2017년 1-2월호.
- [2] 박양하. 2016. 학교도서관 북 큐레이션 서비스를 위한 도서추천 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1): 279-303.
- [3] 박영숙. 2014. 『이용자를 왕처럼 모시진 않겠습니다』. 서울: 일마.
- [4] 백지원. 2010. 주제어 기반 분류에 관한 연구: 미국 공공도서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4): 179-201.
- [5] 백지원. 2012. 주제어기반 분류의 분류론적 개념 정립 및 발전 방안: 발전과정 및 기능 분석을 통하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4): 5-24.
- [6] 백지원. 2013. 주제어기반 분류의 특성 분석: 범주화 및 분류체계의 측면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1): 57-79.
- [7] 사사키 도시나오. 2012. 『큐레이션의 시대』. 서울: 민음사.
- [8]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관/평생학습관 사서추천도서포털. 2018. [online] [cited 2018. 4. 17.] <<http://lib.sen.go.kr/books/index.do>>
- [9] 안정희. 2015. 『책 읽고 싶어지는 도서관 디스플레이』. 경기도도서관총서 13. 수원: 경기도사이버도서관. [online] [cited 2018. 2. 21.] <<https://memory.library.kr/files/original/3344fabd94516dfc9bab726d1688df94.pdf>>
- [10] 이아영. 2018. “강남구립도서관 북큐레이션 사례.” 한국도서관협회 독서문화위원회. 『사서 중심의 도서관 북 큐레이션』 워크숍 자료집: 13-24.

- [11] 이은정, 김기영. 2017. 학교도서관 이벤트컬렉션 프로그램의 독서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사 분야를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34(1): 73-110.
- [12] 정유라, 이지연. 2017. 공공도서관의 테마전시 이용에 따른 이용자의 도서관 인식 및 이용행태 변화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4(2): 27-45.
- [13] 하바 요시타카. 2016. 『책 따위 안 읽어도 좋지만: 세계적 북 디렉터의 책과 서가 이야기』. 서울: 더난.
- [14] Baker, S. L. 1986. "The Display Phenomenon: An Exploration into Factors causing the Increased Circulation of Displayed Books." *Library Quarterly*, 56(3): 237-257.
- [15] Camacho, L., Spackman, A. and Cluff, D. 2014. "Face out: The Effect of Book Displays on Collection Usage." *Journal of Business & Finance Librarianship*, 19(2), 114-124.
- [16] Dutta, D. N. 1961. "Display of Books in The Library." *Journal of Library Science*, 4: 5-8.
- [17] Hjørland, B. 2017. "Subject (of Documents)." *Knowledge Organization*, 44(1): 55-64.
- [18] Martínez-Ávila, D., Segundo, R. S. and Olson, H. A. 2014. "The Use of BISAC in Libraries as New Cases of Reader-Interest Classifications."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52: 137-155.
- [19] Martinez-Avila, D. and Kipp, M. 2014. "Implications of the Adoption of BISAC for Classifying Library Collections." *Knowledge Organization*, 41(5): 377-392.
- [20] Martinez-Avila, D. 2015. "Reader-interest Classifications: Local Classifications or Global Industry Interest?." Global and Local Knowledge Organization One-day conference in Copenhagen on August 12, 2015.
- [21] Rosenbaum, S. C. 2011. *Curation Nation: How to Win in a World where Consumers Are Creators*. 『큐레이션: 정보 과잉 시대의 돌파구』. 스티븐 로젠바움 지음; 이시은 옮김. 서울: 명진. 2011.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im, Kyung Ah. 2017. "In The Era of Curation, To Live as a Librarian." *Today's Library*, 249: 10-11. 2017. 1-2.
- [2] Park, Yang-Ha. 2016. "A Study on the Book Recommendation Standards of Book-Curation Service for School Libra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7(1): 279-303.
- [3] Park, Young Sook. 2014. *I Will Not Serve Customer like A King*. Seoul: Ilma.

- [4] Baek, Ji-Won. 2010. "Analysis of Word Based Classification of U.S. Public Libraries and its Implic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4(4): 179-201.
- [5] Baek, Ji-Won. 2012. "Subject Based Classification: Conceptualization and the Development Plan as a Classificatory System."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3(4): 5-24.
- [6] Baek, Ji-Won. 2013. "An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based Classification System."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7(1): 57-79.
- [7] Sasaki Tosinao. 2012. *The Age of Curation*. Seoul: Minumsa.
- [8]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Office of Education Library/Lifelong Learning Center. "Librarian Recommended Book Portal." 2018. [online] [cited 2018. 4. 17.] <<http://lib.sen.go.kr/books/index.do>>
- [9] Ann, Jung Hee. 2015. Library Display where You want to Read Books. Gyeonggi Library Series 13. Suwon: Gyeonggi Cyber Library. [online] [cited 2018. 2. 21.] <<https://memory.library.kr/files/original/3344fabd94516dfc9bab726d1688df94.pdf>>
- [10] Lee, Ah-Young. 2018. "Case Study of Library Book Curation in Gangnam-gu." Korea Library Association Reading Culture Committee. *Librarian-centered Library Book Curation*. Workshop: 13-24.
- [11] Lee, Eunjung and Kim, Giyeong. 2017. "A Study on the Reading Effectiveness of School Library Event Collection Programs: Focusing on Korean Histo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4(1): 73-110.
- [12] Chung, Yoo Ra and Lee, Jee Yeon. 2017. "A Study on Public Library Users' Perceptions and Behavior Changes after Using the Theme Display Servi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4(2): 27-45.
- [13] Haba Oshitaka. 2016. *I Do Not Mind Reading Books*. Seoul: Deonan.

